

## 수학보고서

성명	OOO	학과/학번	OOO/OOO
파견국가	페루	파견학교	USIL (Universidad San Ignacio de Loyola)
파견기간	2019. 08. ~ 2019. 12. (총 5 개월)		

### 1. 준비과정

#### -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의 준비내용 및 파견학교 지원 과정

가장 먼저 교환학생으로 파견될 수 있는 지원 자격(이수학기, 평점, 공인어학점수 등)을 갖추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첫 단계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고 싶은 학교를 정하는 것입니다. 영어권, 아랍어권, 스페인어권 등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언어 및 국가를 선택한 뒤, 파견교 리스트에서 알맞은 학교를 간추려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공과 연관된 학과가 있는지 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합니다.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부분은 당연히 '왜 가야만 하는지'에 대한 동기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스페인어 배우는 것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파견 가능한 학교목록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와 학교를 확인한 후, 스페인과 페루에 있는 학교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 스페인어 학원에 다니며 기초적인 어학실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 국제교류원에 올라오는 공지사항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파견교 지원을 위한 서류들을 제 때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파견국가 출국 준비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등)

국제교류프로그램에 합격과 파견교의 입학허가서가 나온 후, 비자 및 항공권을 준비하였습니다. 남미 쪽은 비자발급이 어렵거나 일처리가 느리다고 들었기 때문에 비자를 확실히 발급받은 후, 항공권을 구매하여 비싸게 구한 편입니다. 하지만 비자는 생각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받아 큰 어려움이 없었기 미리 항공편을 구매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수학계획 예정이었기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보통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최대 3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한 학기만 파견 가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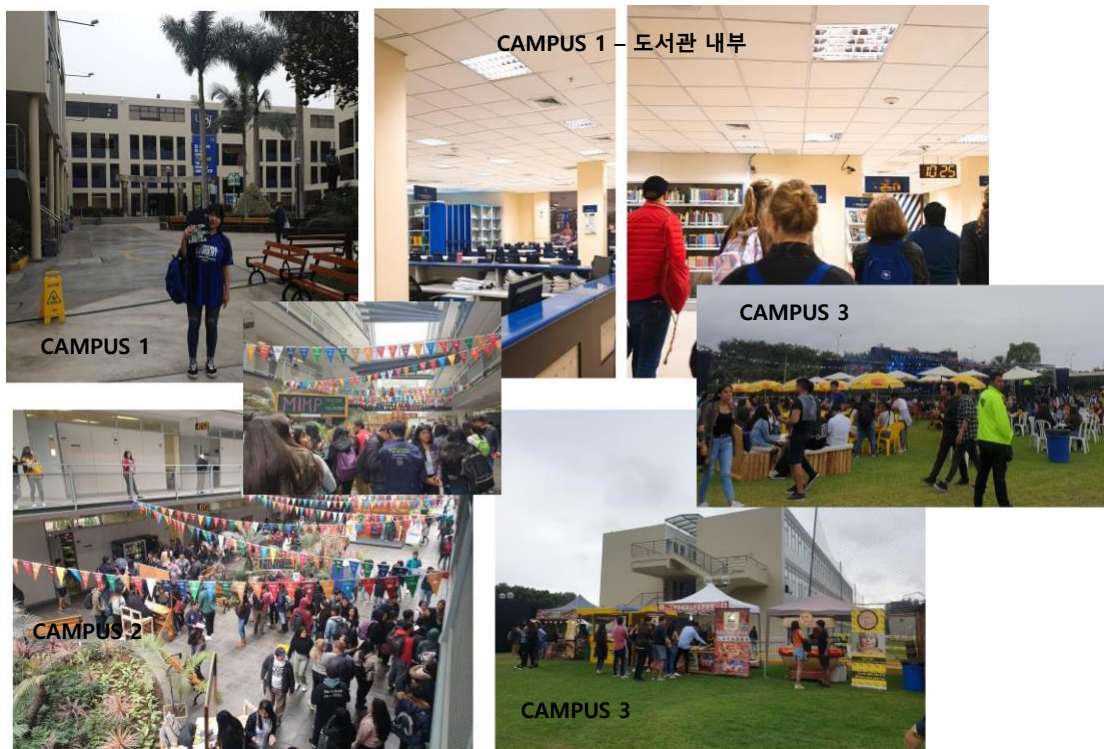
잠깐 다른 나라에 여행 갔다 다시 입국한 경우도 보아 1 학기 파견 예정인 학생은 따로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가도 될 것 같습니다.

- 준비물 : 비상약, 한식, 여행용품, 겨울대비(경량 패딩, 전기요 혹은 전기매트), 여름대비(선크림, 선글라스, 모자), 여분의 핸드폰

먼저, 기본적인 준비물 이외에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비상약과 비타민 그리고 한식 (고추장, 여행용 김치, 김 등)이 필수입니다. 학기 시작 전후로 남미 배낭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은 필수이며, 남미의 경우 고산지대가 많아 고산병약을 미리 구매하거나 현지 약국에서 구입해도 무관합니다. 여행 배낭, 트래킹화, 기능성 옷, 선크림 등을 챙겨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페루는 한국과 날씨가 정반대로 크게 여름과 겨울로 나뉘는데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전혀 없어 전기요나 전기매트를 챙겨가는 것을 추천하며,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경량 패딩이나 후리스 등을 챙겨가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여름에는 햇볕이 뜨거워 모자나 선글라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며,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분의 핸드폰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비상용으로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 2. 파견학교

### ■ 학교 시설



USIL campus 는 3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campus 1,2 는 La molina 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른 campus 는 버스로 1 시간 넘게 걸리는 위치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곳은 학교 행사가 열려 한 번 가본 적이 있으며, 거의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Campus 1,2 는 La molina 에 있으며 안전한 편이고, 주로 campus 1,2 는 도보 5 분 정도로 가깝게 위치해 있어서 왔다 갔다 이동하며 수업을 듣게 됩니다.

## ■ 기숙사 및 숙소정보

이 학교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견교에서 인증된 숙소리스트를 제공하였지만, 호스트와의 연락이 매우 느리고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숙소는 직접 가서 집을 보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개강 시기에 맞춰갔기 때문에 미리 Airbnb 를 통해 월 300 달러 수준의 방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운 좋게 집 주인과 개인적인 연락을 통해 월세를 조정하여 더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는 주로 학교 근처나 Miraflores 에 많이 거주를 하는데 통학하기 쉽게 학교 근처(La Molina)인 도보 20 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집에서 거주하였습니다. Miraflores 는 변화가로 외국인 친구들이 많이 거주하였는데 학교를 통학하기 위해 서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교통체증시간에는 최대 2 시간 정도 걸리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학교 근처나 미라플로레스와 학교 중간지점인 San borja 지역을 추천 합니다. 이 지역에는 한식당이나 한인마트가 위치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숙소를 구 할 때에 Airbnb 뿐만 아니라 Facebook 'looking for roommates in Lima' 페이지에서도 룸메이트를 구하거나 거주지를 찾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학교수업

수업은 스페인어로만 진행되는 수업과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이 있습니다. 개강 전 학교에서 스페인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에 따라 스페인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는 스페인어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첫 학기에는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과 스페인어 기초 수업을 들었습니다. 2 개는 전공, 2 개는 교양 수업이었으며 난이도는 수업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수업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수업에 따라 과제가 많은 수업이 있고, 팀 발표가 많은 수업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발표 및 과제가 많아 수업개수를 많이 듣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수강신청 시에는 보통 대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해당학교 국제교류원에 가면 수업을 추천해주거나 수강시간표를 수정하는 등 수강 신청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 ■ 학교활동

USIL 학교에서 타지 생활 적응을 위해 현지 학생인 '버디'를 정해주어 학교 및 페루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버디들은 자신이 맡게 된 교환학생들과 식사도 하고, 페루에 대한 문화도 배우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

서 지내게 됩니다. 또한 개강 전 학교에서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여 독일, 미국 등 각 국에서 온 많은 학생들을 처음 만나게 되며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환학생들 위해 리마 시티투어나 트래킹을 진행하는 등 페루 문화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참여할 수 있

는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배구, 탁구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도 있으며, Salsa 나 Bachata 등 남미의 댄스 열정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들이 진행됩니다. 저는 살사댄스를 배워 학기가 끝난 후 지인들을 불러 학예회처럼 그동안 배운 춤을 선보였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동아리를 듣는 것도 유익한 교환학생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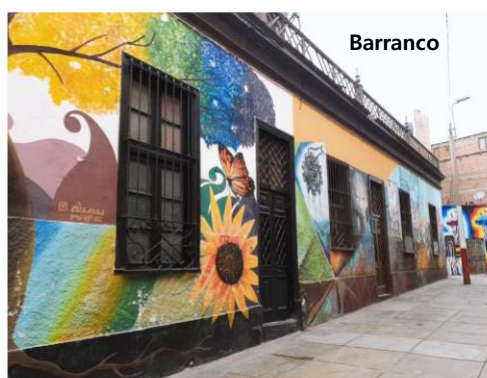


## 3. 주변 환경

### ■ 학교주변정보및지역정보



남미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결정하였을 때, 치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위험한 지역도 있고 비교적 안전한 지역도 있습니다. USIL 은 페루의 수도 LIMA 의 **La Molina** 라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가 위치한 La Molina 지역은 안전한 편이고 조용한 지역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주변에는 대형마트, 카페, 문방구, 식당, 환전소 등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여 10 분정도가면 큰 쇼핑센터인 jockey plaza 가 있어 필요한 물건을 살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 주로 이곳 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Miraflores** 와 **Barranco** 지역은 서핑으로도 유명하고 신시가지로 즐길 거리가 많아 친구들과 자주 찾게 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La Molina 와는 거리가 조금 있어 주로 친구들과 함께 Uber 택시를 나눠 타고 이동하곤 했습니다. **Centro de Lima** 지역은 구시가지로 페루의 대통령궁이 위치하고 있어, 신시가지와는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이 가거나 저녁 늦게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매치기'입니다. 제 친구가 소매치기를 방지하지 위해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지만 가방을 열고 핸드폰을 가져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더욱 눈에 띄고, 타깃이 되기 쉽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 항상 본인의 물건을 잘 간수하고 시도 때도 없이 체크하며 최대한 조심하면서 피해를 막아야합니다.

## ■ 교통

페루의 교통수단은 대부분 버스와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열차도 있지만 한 번도 이용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택시를 많이 이용하였으며 UBER, INDRIVE 등의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길에서 일반 택시를 잡아탈 경우, 비싼 요금을 내거나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으므로 어플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페루는 30 분 거리가 2 시간 걸릴 만큼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시간대에 차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큰 불편함이 있으니 되도록 이 시간대만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비는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 ■ 음식



Ceviche



Aji de gallina



Pollo la brasa

타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음식'을 빼놓을 수 가 없는데요. 페루의 주식은 감자, 닭고기, 쌀입니다. 감자 의 종류가 3000 여개 이상이 재배되어 저렴하고 맛있기도 하며, 거의 모든 음식과 감자가 함께합니다. 페루는 미식 의 나라라고 알려질 만큼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합니다. 하 지만 듣기와 달리 처음 페루 음식을 접할 때는 한국음식 에 비해 짜고, 달고, 시고 간이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음 식을 주문할 때 소금을 빼거나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 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을 하다 보니 자 꾸 생각나고 먹고 싶어 지는 페루 음식의 묘한 매력에 빠 졌습니다. 가끔은 한국음식이 그리울 때는 한인 마트나 대 형마트(TOTTUS, METRO 등)에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여 현지친구에게도 한국음식과 문화를 소개해 주 기 도 하였습니다.

한국 음식 소개하기



페루 가족들과 함께



## 4. 비용

보통 한 달 월세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한 달에 500 달러 안팎으로 지출하였던 것 같 습니다. 식자재가 저렴한 편이어서 함께 온 친구와 집에서 요리하며 외식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여행경비로 좀 더 사용하였습니다. 이외에 추가비용으로 수강과목 교재 살 때 조금 지출이 있었고, 스페인어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은 프린트물로 진행했기 때문에 많은 교재를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수업마다 교재 사용여부는 상이함.) -

## 5.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Ceremonia de bienvenida  
para alumnos internacionales 2019-2



페루로 교환학생 합격이 된 후에도 남미에 대한 두려움으로 갈까 말까 갈등하던 고민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설렘들, 페루에서 겪었던 다사다난한 일들... 저는 아직도 페루에 다녀온 것이 꿈만 같습니다. 가끔 기대만큼 잘 따라와주지도 않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어느 하나 놓칠 것 없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파견기간으로 한 학기와 일 년을 두고 고민을 한다면 무!조!건! 1년을 추천합니다. 처음 온 한 학기는 새로운 것들에 적응하고 배우기 바빠서 시간이 쥐도 새도 모르게 후딱 흘러갔습니다. 저는 1년을 계획하고 페루로 떠났지만 한 학기가 끝난 후 완전 적응하고 여유가 생길 때쯤 코로나 사태로 중도 귀국하게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 한 스페인어를 배우기 위해 교환학생들 떠나신다면 적어도 기본적인 회화나 단어들을 미리 배워간다면 적응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저는 미리 조금이나마 배우고 간 상태에서 스페인어 실력을 좀 더 빠른 시일내에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고 스페인어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업뿐만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겪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교환학생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환경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부딪히고 해결하면서 자신감도 얻게 되고, 열린 마음으로 현지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면서 이해하게 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배우지 못할 더 중요한 경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음악을 사랑하고, 정열적으로 춤을 추면서 그들의 삶을 즐기는 남미의 사람들을 볼 때면, 그동안 한국의 현실에 맞춰 살아남으려고 저를 잊게 하고, 편협한 틀 속에 갇혀 있던 저를 꺼내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 인지 제 자신에게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저에게 성장의 기회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